

'1.2조원 투입' 인공태양 부지, 지질 안정성이 승부 가른다

나주시 포함 7개 지자체 유치 경쟁... 과기부 11월 말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달 말 최종 선정하는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공모에 전국 7개 지자체가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 약 1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 연구소를 건립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6일 과학계에 따르면 인공태양은 수소 1g으로 석유 8톤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 고갈 위기의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게임체인지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부지 공모에는 전남 나주를 포함해 경북 포항·경주, 울산, 경남 창원(추정), 대전 유성구, 전북 군산 등 7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이들 지자체는 약 50만㎡(15만여 평)를 무상 제공하는 조건에서 각기 강점을 내세우며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과기부가 공개한 평가 항목은 기본 요

건(40점), 입지 조건(50점), 정책 부합성(10점)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입지 조건 점수는 50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특히 지질적 안정성이 중요 평가 요소로 꼽힌다.

그러나 일부 후보지는 과거 규모 5.4와 5.8의 대규모 지진 발생 이력이 있어 안전성 평가에서 불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 후보지는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나주시가 제공하는 왕곡면 에너지 국가산단을 일부 포함한 인접 부지는 단단한 화강암 지반 위에 최근 20년간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 등 안정적인 지질 환경을 갖췄으며, 지진 거리에 고속철도 등 우수한 교통망과 인근 연구기관과의 협력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과기부는 오는 13일 유치계획서 점수를 시작으로 14~20일 7개 지역 실무 현장 조

사를 거쳐 21일 평가 결과 보고서를 통해 우선 협상 대상지를 선정하고, 11월 중 최종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연구시설 구축은 2027년 착공해 2036년 완공될 예정이며, 선정 지역에는 약 300여 개 기업이 입주하고 최대 1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에 10조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과기부는 부지 선정 과정에서 부지 제공 가능성, 토지 확보 계획, 진입로·부대시설 구축 가능성 등 기본 요건과 지리적 여건, 자연재해 안전성, 주민 수용성 등 입지 조건을 엄격히 평가한다.

특히 최근 20년간의 지진 발생 현황, 인근 활성단층 거리, 홍수·산사태 위험 요소 등 관련 기관의 과학적 데이터와 자문 자료를 근거로 자연재해 안전성을 검증한다.

정책 부합성 부문에서는 지원 체계의 적절성, 지역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 행정력과 협력 의지 등을 평가한다.

핵융합 연구분야 한 관계자는 "이번 과기부의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 선정은 국가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함께 지역 균형 발전과 첨단 산업 육성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공모의 에너지 핵융합 인공태양 연구시설 전남 유치!! 100만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서명하기

인공태양 연구시설, 왜 전남 나주일까?

1. 국가 에너지 수도 전남 나주: 국가 에너지 수도 전남 나주. 국가 에너지 수도 전남 나주. 국가 에너지 수도 전남 나주.
2. 안정적인 지질 환경: 안정적인 지질 환경. 안정적인 지질 환경. 안정적인 지질 환경.
3. 우수한 연구인력: 우수한 연구인력. 우수한 연구인력. 우수한 연구인력.
4. 지원 체계: 지원 체계. 지원 체계. 지원 체계.

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 기대효과

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 기대효과

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 기대효과



전남도, 지역 혁신 창업의 새 시대 연다

순천시 '도전과 모험' 전남 벤처·스타트업 페스티벌

전라남도는 지역 청년과 혁신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 혁신 창업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7일까지 이틀간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일원에서 제1회 전남 벤처·스타트업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벤처·창업의 도전과 모험, 전남이 혁신을 스타트하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엔 6일 개막식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이병은 순천대 총장을 비롯한 지역대학 총장, 출연기관 대표, 벤처투자사(VC), 액셀러레이터(AC) 등 관계자 3천여 명이 참석해 지역 창업의 비전과 열정을 공유했다.

행사는 도지사 개회사와 주요 내빈 축사, 벤처기업 유공자 표창, 비전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중·고·대학생 창업 경진대회를 통해 예비창업자가 실전 역량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했다.

페스티벌에선 이외에도 창업 지원과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전시, 상담, 투자 연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또 부대행사로 ▲기술이전(오픈이노베이션) ▲1대1 전문가 멘토링 ▲기업 투자 상담회 등이 진행되고, 전

시관과 부스 운영으로 ▲벤처기업·대기업 상생협력존 ▲대학 창업허브센터·유관기관 기술창업 홍보관 등 참가자가 실질적 창업지원 정보와 투자 기회를 얻는 장으로 펼쳐진다.

특히 벤처창업기업 제품 홍보관에는 전남의 우수 스타트업 50여 기업이 참여해 기술력을 선보이고, 대기업과 활발한 현장 투자 매칭, 판로와 협업 가능성을 확대했다.

전남도는 또 로봇·우주·드론·해상 풍력·전기차 등 미래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특화존'을 운영, 기술력이 우수한 제품을 선보여 전남이 미래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RISE 사업 홍보관에서는 권역별(순천대·목포대·동신대) 대학 창업 허브센터를 중심으로 창업 활성화와 성장 지원체계를 선보이며, 지역 대학 졸업생의 정주 유도와 혁신기업 성장 촉진 방안을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김영록 지사가 젊고 유망한 청년이 창업을 통해 전남에서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 벤처창업 생태계 구축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그 일환으로 준비됐다.

신종필 기자

광주김치축제 역대 최고 매출... 민생회복 축제로

5만7000여명 방문... 천인의밥상·농산물마켓·체험행사 등 성황

김치마켓 등 10억3800만원 매출 달성... 전년보다 26.7% 증가

'광주김치축제'가 역대 최고 매출을 달성하며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 축제'로 도약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2일까지 사흘 동안 광주시청 일원에서 개최한 '제32회 광주김치축제'에 5만7000여명의 방문객이 몰리고, 10억3800만원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축제는 '우주최광(光) 김치파티'를 주제로 열렸으며, 시청 앞 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해 김치마켓과 농산물마켓을 전면 배치하는 등 방문객 동선을 효율적으로 구성했다. 이에 방문객과 임접업체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김치마켓은 첫날부터 긴 줄이 이어져 대통령상 수상 김치, 전통시장 김치, 품질인증 김치 등은 조기 매진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축제는 유명 가수 없이도 ▲천인의 밥상 ▲김치마켓 ▲푸드쇼 등 대표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내실 있는 콘텐츠로 구성, 차별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참여 확대, 문화누리카드 사용 등으로 실질적 경제효과를 창출했다. 특히 축제기간 10억3800만원의 매출을 달성, 전년보다 26.7%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시는 행사기간 ▲김치팝업 및 대통령상 수상작품 전시 ▲대한민국명장 '안유성소' ▲대통령상 김치명인 마스터 클래스 ▲김치놀이터 ▲김치체험 등 방문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운영했다.

또 ▲청년상인 공동 판매전 ▲소금체험관 ▲소금전통연구센터의 천연염 이력제 ▲오푸기 팝업 ▲공무원 문화축제 ▲달빛 합동공연 등 전국 기관·단체가 함께 참여하며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신영길 기자

전라남도는 생활임금위원회에서 2026년 적용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 2천305원(월 257만 1천745원)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4위 수준이다. 이는 지난 7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1만 320원)보다 1천985원 높은 금액이다.

2026년 생활임금은 2025년(1만 930원)보다 375원 인상된 금액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로자의 근로 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액은 올해(249만 3천370원)보다 7

전남도, 2026년 생활임금 시급 1만 2천305원

최저임금보다 1천985원 높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4위

산하 지방공사·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와 전남도에서 위탁한 사업을 수행하며 인건비 보조를 받는 민간 기관·단체에 소속된 근로자다. 지방공무원법 적용자와 공공근로 등 국가 동일 임금 체계를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서은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노동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전남도의 생활임금 인상이 노동자의 안정적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정부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다양한 여가·문화 생활 보장을 위해 지난 2015년 10월 '전남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11년째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다.

임채일 기자

전남도, 마늘·양파 재해보험 가입 기간 연장

전라남도는 잦은 강우로 원예작물 파종과 정식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 신청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마늘(난지형)은 기존 14일에서 21일까지, 양파는 기존 21일에서 28일까지 늦춰졌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를 보장함으로써 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보험료의 90%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는 물론 시장가격 하락 등으로 농가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줄면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

도로 보험료의 85%를 지원한다.

마늘, 양파는 두 가지 보험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으며, 두 보험 모두 수확량 감소를 보장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복 가입은 불가능하다.

보험 가입을 바라는 농업인은 품목별 가입 기간에 가까운 지역 농·축협이나 품목농협에서 신청하면 된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예측이 어려운 자연재난과 가격 하락 등으로 수입 감소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과 수입안정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인 기자

